

“수영 경기 즐기고 ‘맛의 고장’ 광주 향토음식 맛 보세요”

‘음식·통과의례 상차림 전’ 남부대 마켓스트리트에 문 열어 전통·이바지·토속음식 70명의 명인들이 직접 조리해 전시

광주시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맞아 광주전통향토음식 알리기에 나섰다. 사단법인 빛고을전통음식아카데미가 주관하고 광주시가 주최하는 ‘광주 전통향토음식 및 통과의례 상차림 전시회’가 대회 개막에 맞춰 남부대 주경기장 마켓스트리트에 문을 열었다.

맛의 고장 광주에서 열리는 이번 수영선수권대회의 불거리 중 하나로 전통음식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관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전시회는 광주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발달한 향토음식과 절기에 따른 시·절 음식, 혼례 및 이바지 음식, 서민들의 소박한 토속음식 등을 70여 명의 전통음식 명인들이 직접 조리해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특히 지난 5월 광주대표음식으로 선정된 ▲광주 한정식 ▲광주 오리탕 ▲광주 주먹밥 ▲광주 상추튀김 ▲광주 육전 ▲무등산 보리밥 ▲광주 송정리 떡갈비 등 30여 가지의 음식을 선보인다.

전시회를 찾은 송선영(여·47·광주시 광산구)씨는 “광주 전통음식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자리인 것 같다”며 “명인들이 만든 음식이라 그런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돈다”고 말했다.

전시장 한쪽에는 전통음식 명인들이 직접 만든 통과의례 상차림이 정성스레 차려

져 있다. 사람이 출생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할 보편적인 의례 출생, 백일, 돌, 관례, 혼례, 수연례(회갑·칠순·팔순), 회혼례, 상례, 제례 등 쉽게 볼 수 없는 한국 전통 상차림이 그것이다.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공간도 준비돼 있다.

전통 혼례상이 차려진 부스에는 방문객들이 전통 혼례 복장을 착용하고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돼 있다.

광주향교 전통의복 명인이 마치 진정어머니처럼 따뜻한 손길로 방문객들의 전통 혼례 복장 착용을 돕고 있다.

이날 아내 송선영씨와 전시회를 방문한 김중기(52)씨는 “전통 혼례복을 입으니 20여 년 전 결혼하던 날이 생각이 난다. 아내를 기다리면서 엔지 모를 설렘을 느꼈다”고 웃었다.

정난희빛고을전통음식아카데미 회장은 “빛고을전통음식아카데미는 잊혀 가는 광주 전통향토음식의 명맥 유지와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수영선수권대회에 참여한 선수단이 많이 방문해 광주 전통향토음식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 전통향토음식 및 통과의례 전시회는 오는 28일까지 열리며, 2차 전시회는 8월 5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특별취재단 =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 전통향토음식 및 통과의례 상차림 전시회’가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개막을 계기로 남부대 주경기장 마켓스트리트에 문을 열었다. 관람객이 전통혼례복을 입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마스코트 수리·달이 인기 최고

기념품판매소 대회 이틀 만에 인형세트 2만1000개 판매 포토존 관광객에 ‘인기’ 이모티콘 7만 1455건 소진



13일 기준 기념품 판매소 9곳의 관련 기념품 판매율은 3000% 이상 급증했다. 수리·달이 인형 세트는 총 3만1000세트를 제작했는데, 대회 이틀 만에 67%인 2만 1000세트가 팔렸다. 판매 1위 상품은 수리·달이 인형이고 열

쇠고리, 마그네틱, 텀블러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기장 주변과 KTX송정역 등 26곳에 설치된 수리·달이 조형물은 세계수영대회 포토존으로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앞서 대회 홍보를 위해 지난달 4일 무료로 배포했던 수리·달이 이모티콘은 배포 18시간 만에 7만1455건 전량을 소진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도 했다.

대회 기념품 공식후원사인 제일F&S 관계자는 “지역 특산품을 포함해 판매 중인 기념품은 총 70여종으로 수리·달이 관련 기념품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대회가 시작하면서 인형세트 단체주문도 크게 늘어 곧 완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 = 김형호 기자 khh@

금남로 흥겨운 프린지페스티벌

외국인·시민 어울림 한마당 “국악인 목소리 매력 넘쳐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12~28일)가 막을 올린 가운데 13일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프린지페스티벌이 열렸다.

이날 오후 6시 5·18민주광장은 더위를 식히는 분수가 시원하게 뿜었고, 분수대 앞 광장에서 한 여름에 보기 힘든 눈덩이가 조각가의 손에 의해 물고기, 곰인형, 사람 등의 형상으로 변신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과 외국인 방문객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관광객들은 시원한 눈 조각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눈덩이를 만지며 한 여름밤의 서늘함을 만끽했다.

광장 한쪽에 설치된 무대에선 국악무대가 한창이었다. 처음 듣는 남도가락에 외국 관광객들은 지나치던 발걸음을 멈추더니 한참을 서서 국악무대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몇몇 외국 관광객은 아예 자리에 앉아 손과 머리를 국악장단에 맞춰 흔들며 진정으로 소리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캐나다에서 온 새뮤얼 스미스(Samuel Smith·35)씨는 “처음 듣는 음악인데 환상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개막한 첫 주말인 지난 13일 광주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 대표 축제 프린지페스티벌을 찾은 시민들이 한 여름 눈 조각상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적이다. 여자 국악인의 목소리에 담긴 힘이 매력적이다”며 “광주에 와서 음식과 공연, 사람들의 친절함 전부 마음에 든다”고 광주를 즐긴 소감을 밝혔다.

새뮤얼씨의 말처럼 이날 행사장엔 통역, 안내데스크, 길 안내자 등 봉사활동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자발적으로 이곳을 찾아온 통역 자원봉사자 장세영(73)씨도 그중 하나다. 자원봉사 근무 시간이 짧았지만 축제를 즐기러 온 외국인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이곳을

찾아 축제 내용을 설명해주고, 길안내를 하며 광주시민의 친절함을 세계인에게 보여줬다.

장세영씨는 “광주가 이번 수영대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5대 메가스포츠대회를 개최한 4번째 국가가 됐다는 사실이 광주시민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꼈다”며 “광주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이번 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대회기간 동안 세계인을 친절로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 = 김형호 기자 khh@



Vitamin House
귀입문의 1588-8529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